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 력사에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대회들
-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역사에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 대회들

차례

역사에 아로새겨진 조선로동당대회들.....1	· 3대혁명의 기치높이.....16
· 새 조선의 앞길을 밝혀주시어.....2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22
· 위대한 승리의 년대들로.....4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어.....32
· 온 나라를 천리마대고조어로.....8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 사회주의공업화실현으로.....12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44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긍지와 자랑을 안고 맞이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지나온 년대와 세기들을 위대한 전환의 시대, 비약의 분수령들로 아로새겨온 당대회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명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대회들에서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전략적로선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백승만을 안아오심으로써 당대회들을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주시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0여년의 장구한 로정에는 여섯차례의 당대회들이 기록되어있다.

글 김래현



새 조선의 앞길을 밝혀주시어

70여년전인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된 그해 10월에 평양에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가 열리었다.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창건을 선포한 이 대회가 조선로동당의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당대회이다.

첫 당대회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2월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대회합이었으며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준 의의깊은 대회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민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로선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빛나게 실현

되었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근로하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운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준 토지개혁의 실시를 비롯한 민주개혁의 성과는 조선인민을 새 조선건설에 적극 불려일켜 온 나라에 애국운동의 불길,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이 세차

게 타오르게 하였다.

주체37(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해방된 조국에 펼쳐진 인민의 새 세상은 온 나라를 건국열의로 들끓게 하였다.



토지개혁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이 실시되었다.



주체37(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이 건설되었다.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3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4월

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주체37(1948)년 3월

위대한 승리의 년대들로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다.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평양시민대회(왼쪽)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남북조선인민대표자대회(오른쪽)

주체37(1948)년 3월에 진행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적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려는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주체37(1948)년 9월 9일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으며 경제의 부흥발전에 힘을 넣어 자립적민주경제토대를 축성하였다.

창조와 건설로 새 조국건설의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인민

의 앞길에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던 준엄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에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인민을 명도하여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후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고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3개년(1954년-1956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제시할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44(1955)년 4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농업협동화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자본주의상공업자들도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되어 보람찬 새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주체42(1953)년 1월 1일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전반적무상치료를 실시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은 인민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였다.

준엄한 년대들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위대한 전환을 가져온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조선인민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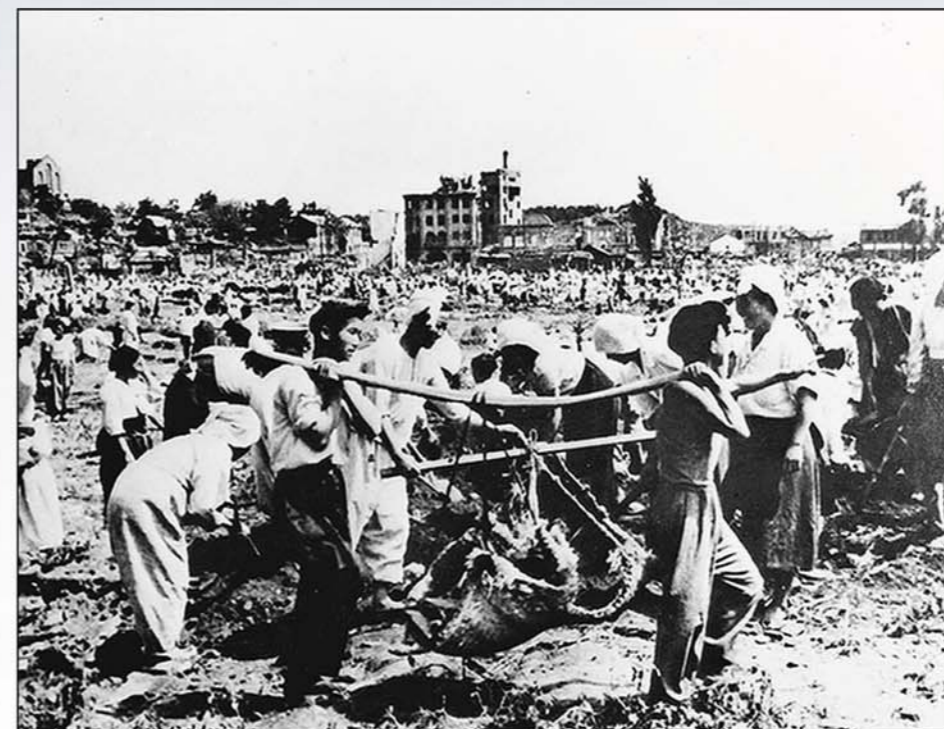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주체42(1953)년 1월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조선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어버렸다.



전후복구건설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농업협동화가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다.



온 나라를 천리마대고로

주제45(1956)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당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의 계기로 되었으며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는 혁명적대고조,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며 당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 조선로동당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중령도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여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기초건설강령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으며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인민경제발전 5개년(1957년-1961년)계획의 과업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수행되었다.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45(1956)년 12월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고 온 나라에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써 더욱 심화발전되어 집단적혁신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선(오늘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타오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전인민적운동으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져 사회주의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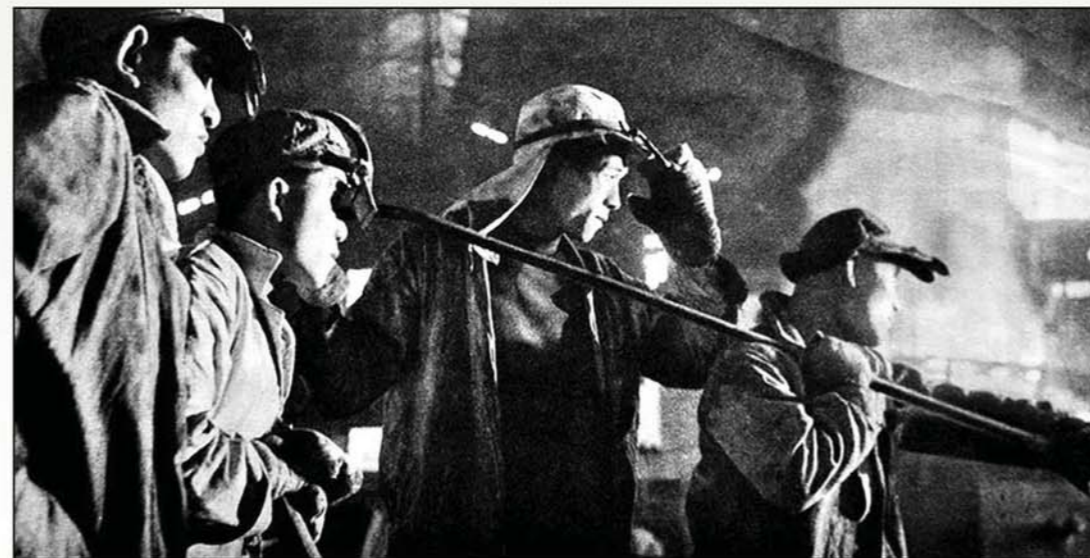
영웅적로동계급은 빈터에서 30여일만에 첫 트랙포트를, 40일만에는 첫 《승리-58》형자동차를 만들어냈으며 8m타닝반과 3 000t프레스, 굴착기, 대형양수기, 불도젤, 전기기관차와 같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도건설에서 단 14분에 살림집 한세대씩 조립하는 평양속도를 창조함으로써 건설부문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으며 100만정보관개면적확장을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문화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주제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가, 주제47(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고 주제48(1959)년 4월 1일부터는 전반적무로교육제가 실시되었으며 교육과 과학, 보건과 체육 등 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혁명적대고조, 천리마대고조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조선은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높이 든 강선의 로동계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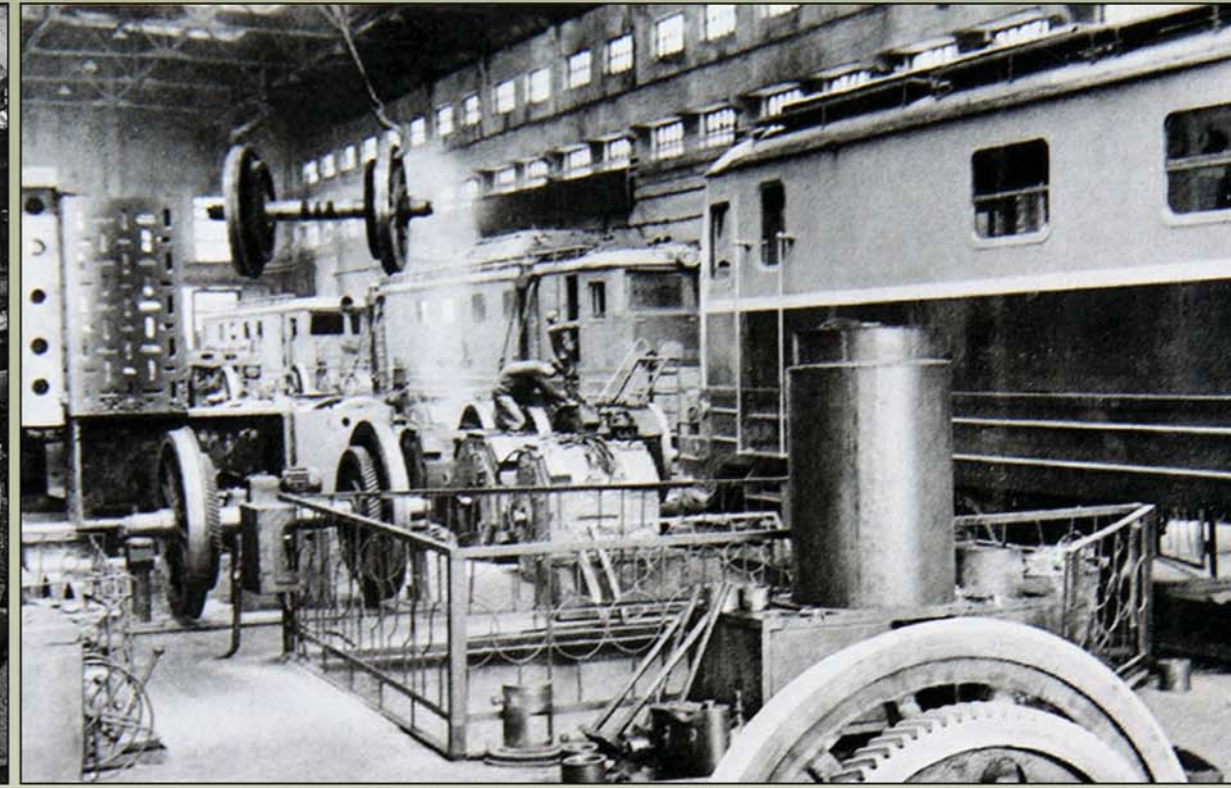


온 나라가 천리마작업반쟁취운동에 떨쳐나섰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승리-58》형자동차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7(1958)년 11월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 굴착기, 전기기관차생산에서 기적이 창조되었다.



살림집건설에서 단 14분만에 한세대씩 조립하는 평양속도가 창조되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자동차와 트랙터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9월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며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주체50(1961)년 9월

사회주의공업화실현으로

주체50(1961)년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는 사회주의 전면적건설을 위한 제1차 7개년(1961년-1967년)인민경제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줌으로써 조선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 역사적인 대회이다.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새로운 농업지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 건설은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주체51(1962)년 12월에 조선로동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고 온 나라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어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경제건설에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이 창설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개건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조선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대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은 조선인민을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건설으로 힘찬 진군을 다그쳐 나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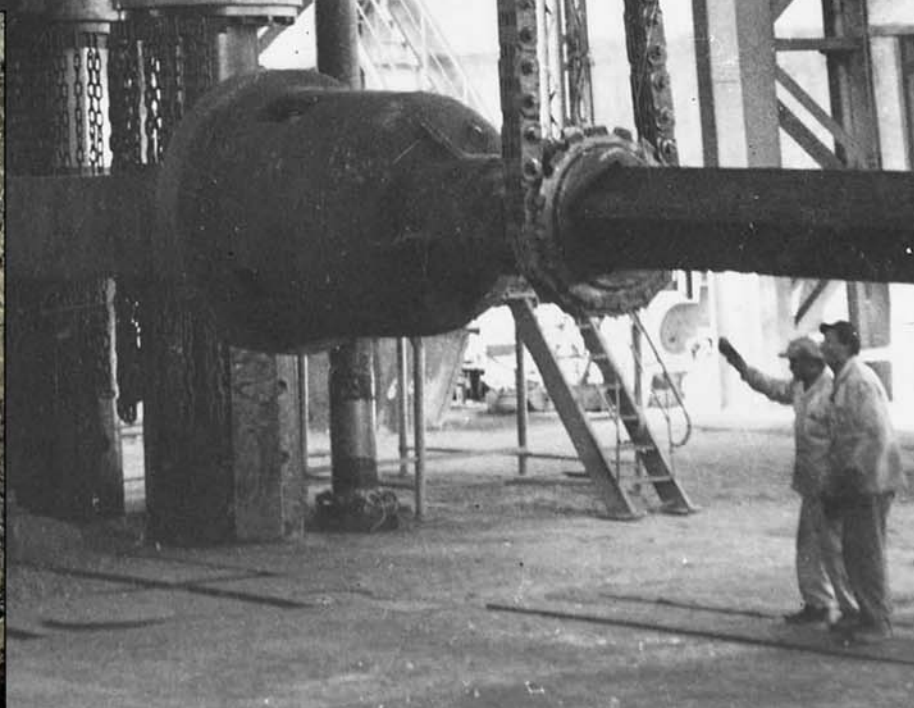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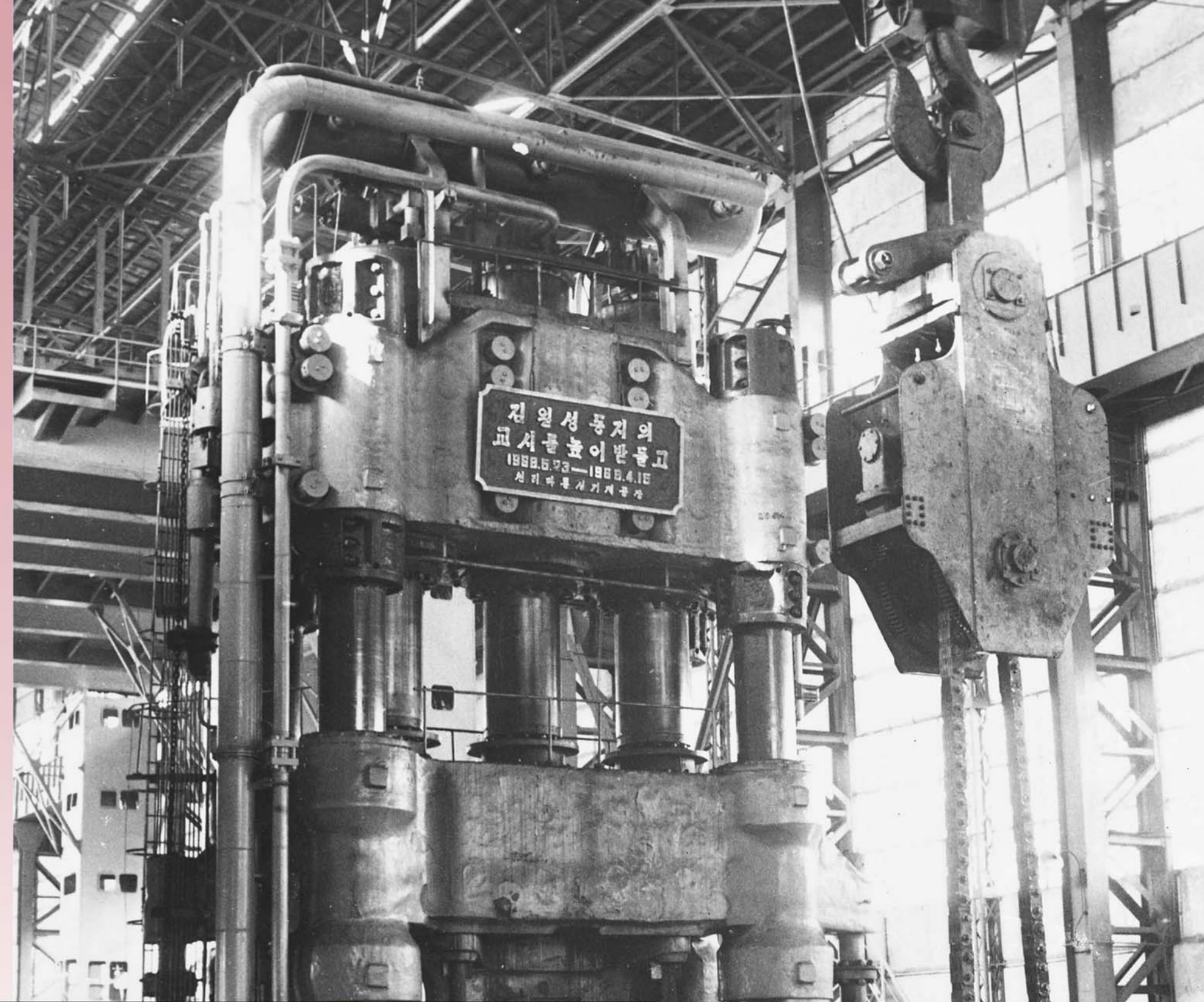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대대가 튼튼히 마련되었다.





2. 8비날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10월



6 000아프레스와 대형선박, 중량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들을 만들어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9(1970)년 11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군센 의지를 과시하며 나아가는 군중시위참가자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주체59(1970)년 11월

3대혁명의 기치높이

주체59(1970)년 11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기술혁명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6개년(1971년-1976년) 인민경제계획의 기본과업을 밝혀주었다.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사회주의물질기술적대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수행되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산업텔레비죤화와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실현되고 농촌 경리가 발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고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의 과업관철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적극 진행되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70일전투

를 받기하시고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어 6개년 계획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었다.

그리하여 김책제철소(오늘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대형용광로가 새로 일떠서고 은물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건설이 완공되었으며 무산광산에서부터 김철에 이르는 총길이 98km에 달하는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이 뻗어나갔다.

농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어 6개년계획에 예견된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되었으며 수많은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섰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포전에 게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65(1976)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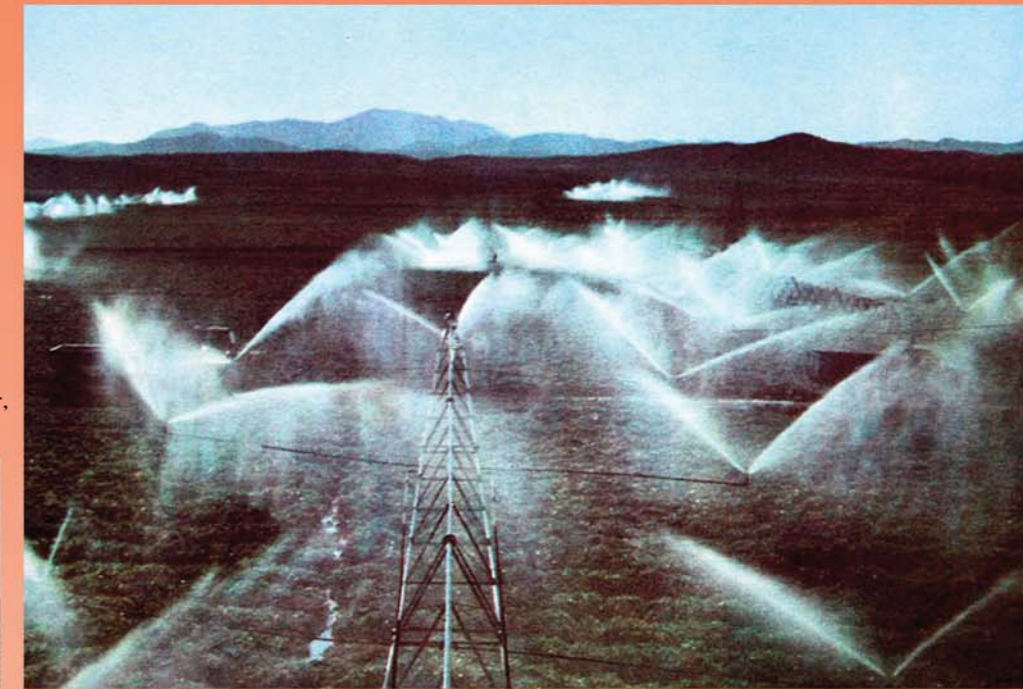
주체 63(1974)년 4월부터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조치를 취함

으로써 인민들은 세금이라는 말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100만명의 지식인대군이 자라났다.

조선로동당은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의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제2차 7개년(1978년-1984년)인민경제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수리화, 전기화가 실현되었다.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이다.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은률광산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이 완공되었다.



7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일어나는 등 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장에서 사업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10월

주체69(1980)년 10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조선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제시하고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밝혀주었다.

조선로동당은 전당, 전국, 전민을 80년대 속도창조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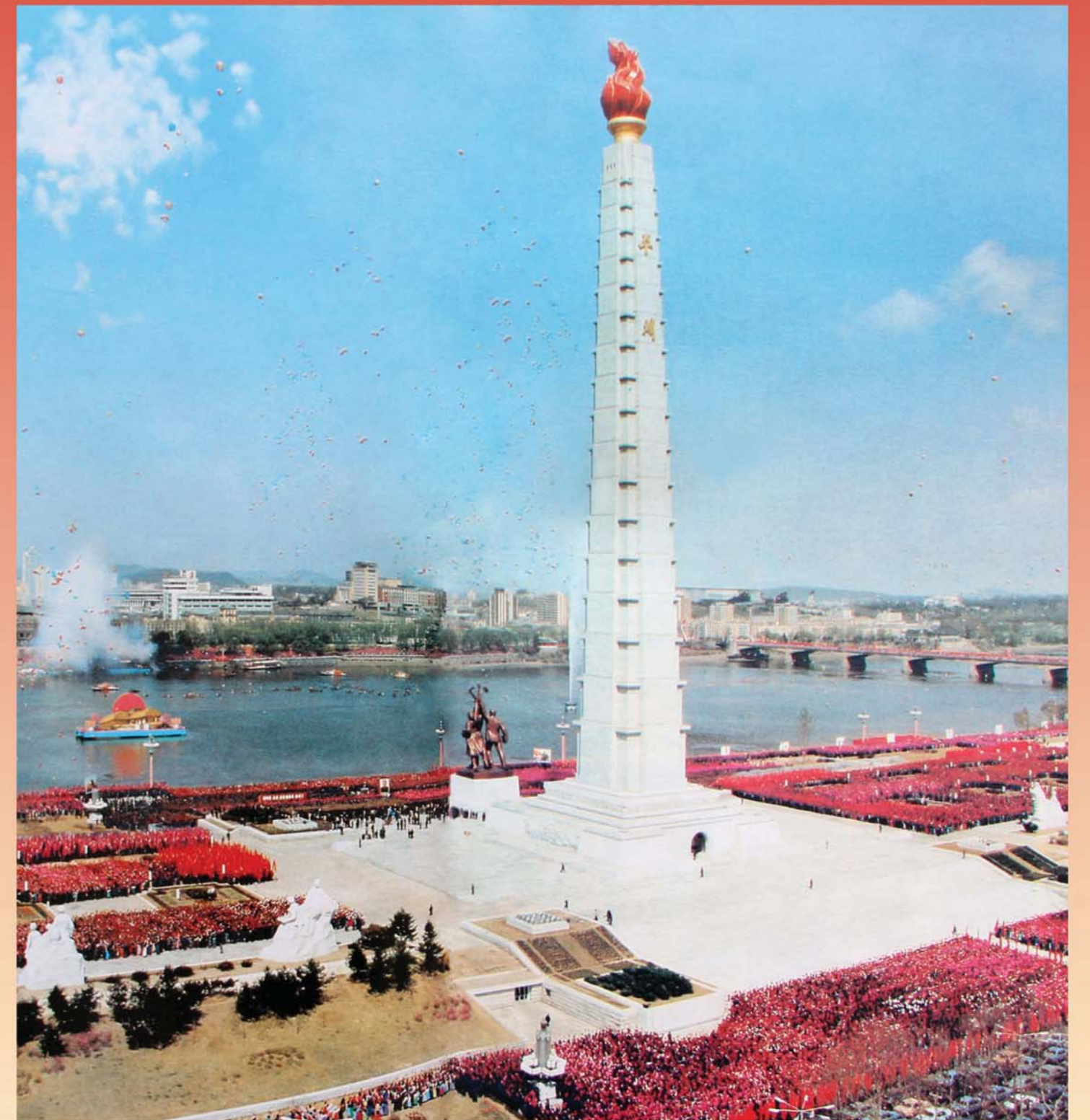
은 나라에 타번진 대진군속에서 수도

평양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으며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으며 서해갑문이 솟아올랐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6 000m³산소분리기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1만t프레스를 만들어냈으며 평양-개성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주체78(1989)년 7월 조선에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날로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90년대의 준엄한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첫 위성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체71(1982)년 4월에 주체사상탑이 건립되었다.



서해갑문건설장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3(1984)년 4월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안고 새 세기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쳐놓았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만리마의 속도로 우주강국, 핵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천지개벽



기계공장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2월

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되고 행복이 꽃피난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충정의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한 자랑과 긍지를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고있다.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아 건설한 서해갑문





전방지휘소에 오른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1월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하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최정예전투대로 자리났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수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월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6월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에 새기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주체89(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의 리정
표가 마련되었다.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2. 8비날론연합기업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2. 8비날론연합기업을 비롯한 화학공업기지들이 개건되어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생산도대가 마련되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어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인민의 만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워가는 조선에서는 오늘 창조와 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로운 만리마시대를 열어놓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으로 변어나고있는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곧 승리이라는 불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에 이어 놓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만을 가려는 혁명적의지에 넘쳐있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수백만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자라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드는 역센 기둥으로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가 높이 발휘되어 자립적

민족경제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큰 전진을 가져오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실현되고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다.

황금해의 새 령사가 창조되는 속에 《이채어경》이 펼쳐지고 드넓은 청춘과원들에서는 과일대풍이 들어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넘쳐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해마다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수많은 건축물들이 시대의 기념비로 일떠서고 도시와 농촌들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솟아났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 따라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가 힘있

게 추진되고있으며 치료예방사업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안겨지고있다.

은 나라에 체육열기가 차넘치는 속에 국제경기들에서는 영웅조선의 체육신화들이 창조되고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이 창작되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룡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등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 시설들에서는 랑만과 희열에 넘쳐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이 꽃피나고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기려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나라의 과학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공화국을 우주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 조선의 위성이 만리대공에서 지구를 굽어보는 경이적인 사변을 가져왔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와 신념으로 만장약된 영웅적조선 인민군은 무전막강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고 나라의 방위력은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강위력한 무장장비들로 역세계 다져졌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으로 위용떨치고 새 세기산업혁명의 불길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에로 비약하며 전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창조와 변영의 길이야말로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눈부신 길이다.

룡성변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주름잡으며 창조와 변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변영하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성조선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김현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6월



자강력제일주의가 높히 발휘되어 기계공업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었으며 도처에 과일, 버섯, 온실남새생산기지들이 일떠섰다.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대동강반에 일떠선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미래과학자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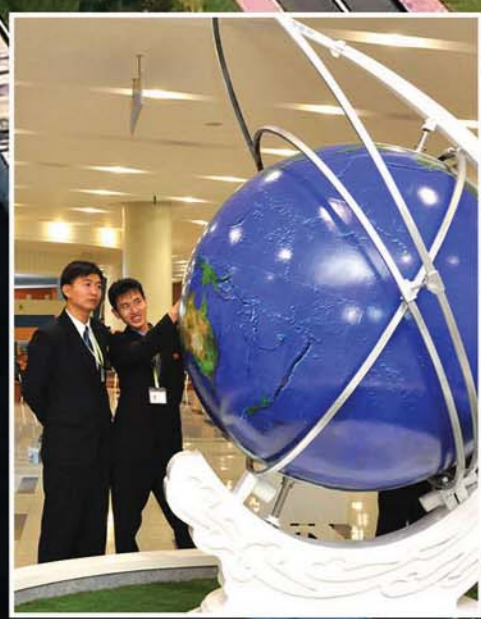
문화정서생활기자들이 꾸려져 어디서나 인민의 기쁨이 넘쳐난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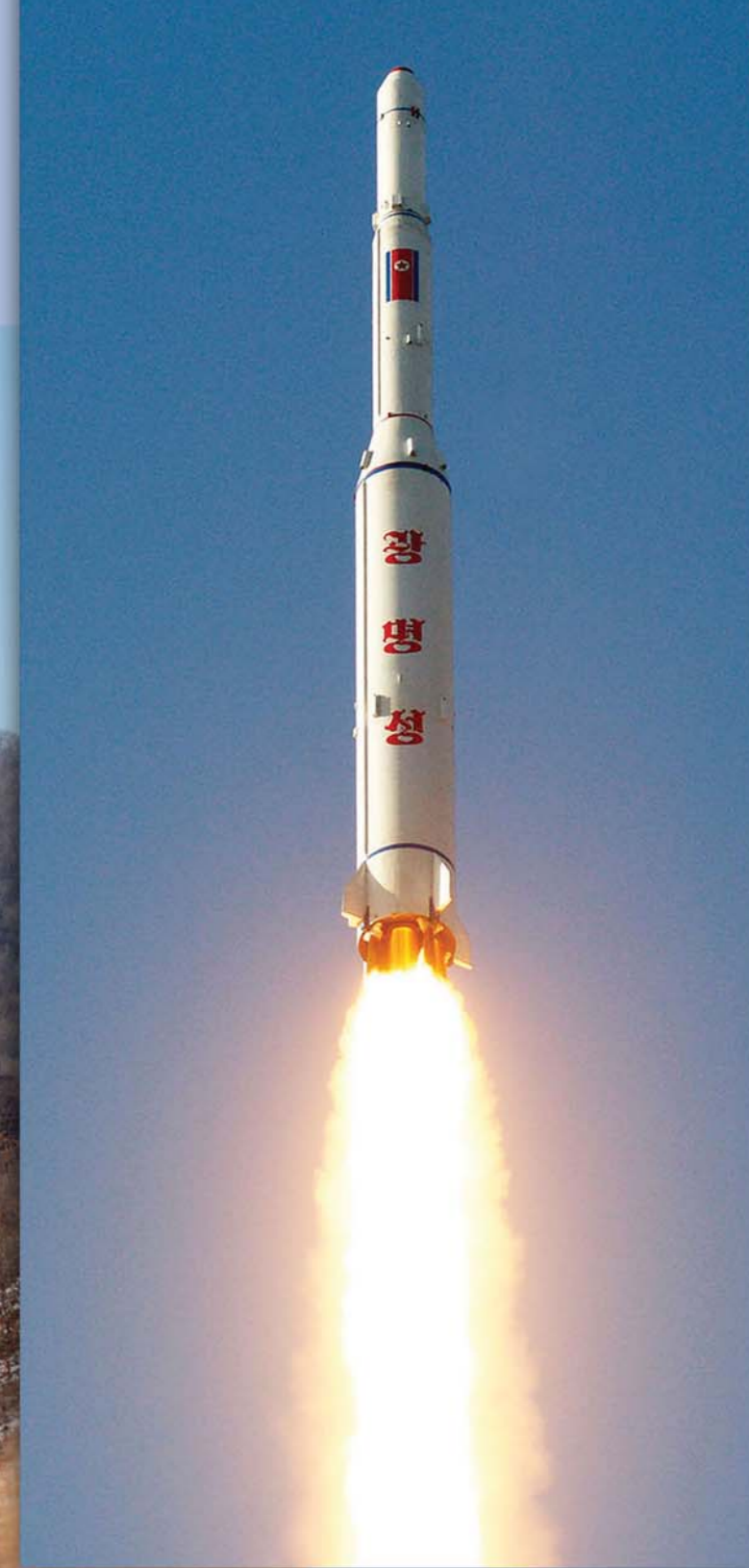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1만명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



전민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속에 배움의 나라를 펼쳐간다.



체육인들은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3월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